

유럽, 중동 지역 모두에 적합한 WINIX 인기 모델



PIP



Multi Picture



Zoom



Blind Sc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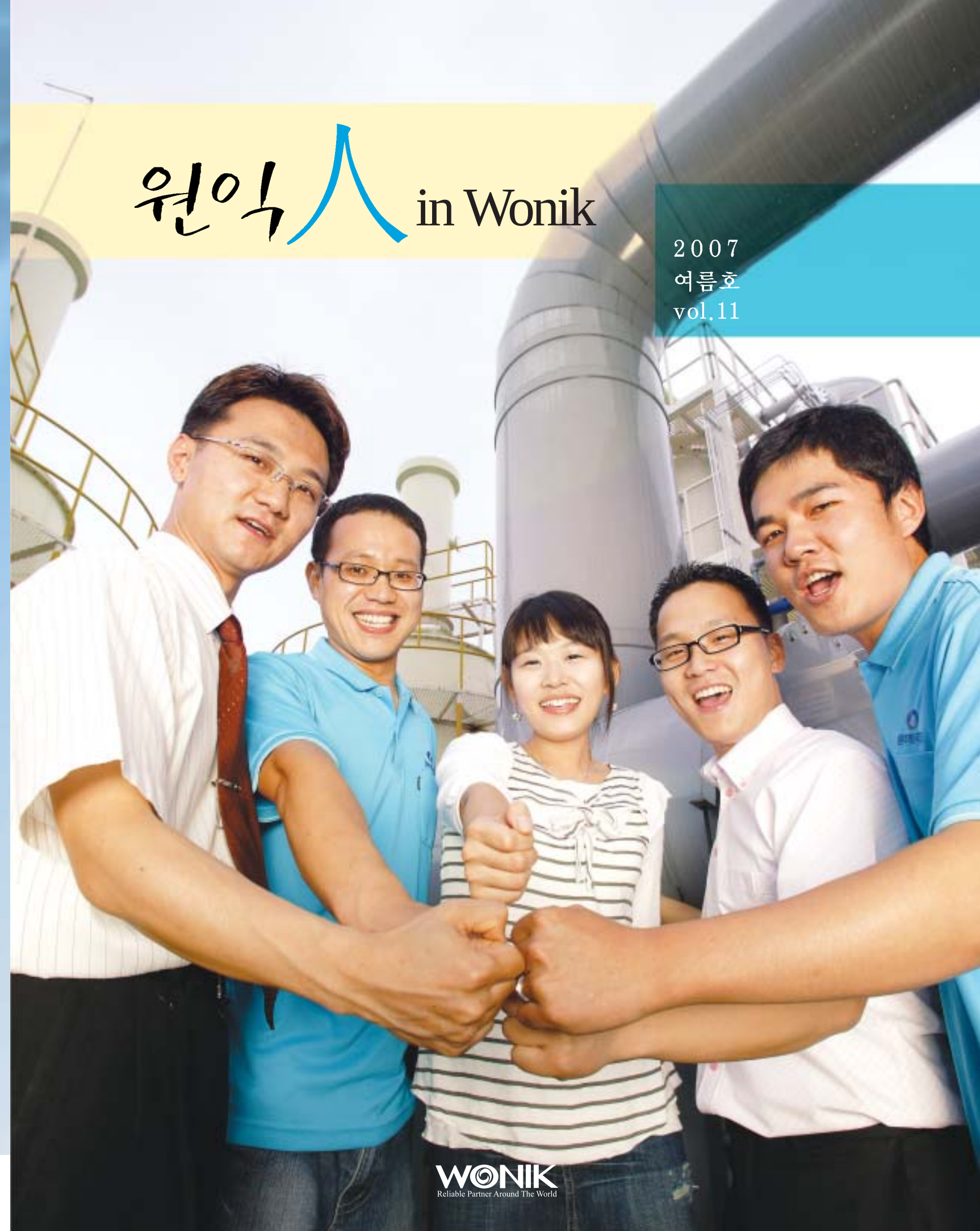
VFD



2 SMART CARD

원익 in Wonik

2007
여름호
vol.11



앵두 : 유년시절 누나의 가시 찢린 손끝에 맺혀 있던 선홍빛 피 한방울.
모래 : 주로 해변에 많이 산재해 있는 최소 단위의 금빛.
와등 : 어둠 속에 박혀 있는 달마의 물기 어린 눈알 하나.
허수아비 : 농업에 이용되었던 인류 최초의 로봇.
호수 : 고여 있는 슬픔이다. 고여 있는 침묵이다.
강물처럼 몸부림치며 흐르지 않고 바다처럼 포효하지 않으며 일어서지 않는다.
다만 바람부는 날에는 아픈 편린으로 쓸려가는 물비늘.
기다림끝에 흘리는 눈물들은 기다림 끝에 흘린 눈물들끼리
한자리에 모여 호수가 된다.
온 하늘을 가슴에 담은 사랑이 된다.

-이외수의 「감성사전感性辭典」중에서-



Cover Story
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해 12월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이후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성장 기반을 닦으며 굵적굵직한 성과들을 이루어 내고 있다. 이준열 대표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목표 아래 강한 주인 의식과 넘치는 의욕으로 한여름의 무더위도 잊은 채 열정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다

원익그룹 사보 | **원익人 in Wonik** 2007년 여름호
통권 11호 | 발행일 · 2007년 7월 | 발행인 · 임창빈 | 발행처 · 원익그룹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23층
기획 · 기획조정실 (02-3465-4273) | 편집 · 매직랜턴 (02-325-7916)

Contents

4	Wonik News	원익그룹 계열사 주요 소식
6	Cover Story	원익머트리얼즈
8	Power of Wonik Technique	디비코, 세계 최초 HD급 H.264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발표
10	Wonik's Today	신원종합개발 '아침도시' 신축공사팀
12	Hot Issue	VLK, 엑시머 램프
14	Wonik News	원익그룹 계열사 단신
17	Discovery of Baduk	제 3기 원익배 십단전
18	Self Innovation Note	(주)IPS의 생존전략, 경영혁신과 원기혁신을 펼쳐며
20	World Company Search	세계기업 탐방, 핀란드의 바이살라(Vaisala)
22	Scene of Welfare Service	원익 사회봉사단 희망팀의 강남보육원 봉사 활동
24	Event With a Family	원익워츠 총무과 이정규 씨 가족
26	Talk Box	직원 여행기 (캄보디아, 씨엠리엵)
28	Economic Report	금리가 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30	Theme Park & Theme School	온 가족이 함께 찾는 자연공원과 자연학교
31	CEO Column	열린 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Wonik Headline News



(주)원익, 의료기기 KGMP 적합인증

(주)원익은 2006년 1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품질팀 및 산업기술시험원 의료심사팀으로부터 위산도측정장치 등의 체외진단용 기기에 대하여 의료기기 KGMP적합성 1차심사를 받았으며, 그 심사 결과 '적합'을 득한 바 있는데, 추가로 2007년 3월 26일~27일 이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품질팀 및 산업기술시험원 의료심사팀으로부터 12개 품목군 127개 의료기기수입품목허가/신고품목에 대하여 의료기기 KGMP적합성에 대한 2차 심사를 받은 결과, '적합인증'을 득하게 되었다.

의료기기분야 선두업체로서 모범적인 품질관리체계를 조속히 수립하고자 노력한 결과, 현재 수입품목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품목군에 대하여 KGMP시스템 전면 전면 의무화 기간보다 2달여 앞서서 '적합'을 득하였다.



(주)원익쿼츠, 이종[異種] 쿼츠 디스크 압착 기술 개발

QUARTZ WARE는 반도체 제조에서의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및 PVD(Physical Vapor Deposition) 공정에서 고온 및 화학적 물리적 반응에 안정한 물질로 고순도의 QUARTZ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고순도 QUARTZ는 금속에 비해 기계 및 용접 가공이 어려워 제조상의 한계가 있지만 원익쿼츠에서 이러한 한계를 한 단계 극복하는 기술력을 확보했다.

반도체 제조용 고순도 쿼츠는 크게 OPAQUE 쿼츠(이하 OPQ)와 투명 용융 쿼츠(CFQ: Clear Fused Quartz)로 나뉘는데, OPQ 디스크가 반도체 프로세서 튜브 내에서 열 전달 및 복사열 차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존 OPQ 디스크 자체만으로는 내구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PQ 디스크에 CFQ를 감싸는 형태인 샌드위치 모양의 디스크를 제작하는 것이다.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원익쿼츠는 샌드위치 디스크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2007년 2월부터 시작하여 4개월간의 연구개발 끝에 이러한 성과를 내었으며, 이로 인하여 해외 및 국내 수주 증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미국 VOLTAIX社와 SOURCE 독점 공급계약 체결

반도체 및 DISPLAY용 특수가스 전문 제조업체인 (주)원익머트리얼즈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VOLTAIX社(대표 John P. deNeufville)와 GERMANE 등 반도체용 특수가스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8일 오창과학단지내에 위치한 (주)원익머트리얼즈 본사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이전부터 꾸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양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제휴로 볼 수 있다. 금번 계약을 계기로 (주)원익머트리얼즈는 향후 특수가스 Source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양사간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기술제휴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반도체 및 DISPLAY 산업의 소재공급업체로서 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3기 원익배 십단전 개막

(재)한국기원이 주관하고, 원익그룹 3개사(주)원익, (주)원익쿼츠, 신원종합개발(주)가 후원하는 원익배 십단전 3기가 지난 5월 29일 개막하여 5월 31일까지 예선을 벌였다. 원익그룹 이용한 회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지난 2차례의 대회를 거치면서 유명 기전으로 자리잡은 원익배 십단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예선전을 통과한 본선 진출자 39명은 전기 4강 멤버(안조영 9단, 박홍석 5단, 최철한 9단, 송태곤 8단)와 후원사 시드 이창호 9단 등과 함께 44강이 참여하는 본선과 결승에서 본격적인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본선 및 결승은 2007년 7월말부터 2008년 2월까지 열릴 예정이며 바둑TV에서 28주간 45회 방송을 한다. 본방송은 매주 월/화(22:00~24:00) 예정이며 준결승 및 결승 3번기는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원익머트리얼즈]

특수가스 제조업계의 종합메이커로 부상



충북 오창과학단지 내에 위치한 (주)원익머트리얼즈는 반도체 및 LCD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N₂O, NH₃, CO₂ 등의 고순도가스 및 특수가스를 제조하여 반도체 제조회사에 공급하고 있는 특수가스 제조 전문 기업이다. 2002년 아토의 특수가스사업본부로 출발한 후, 핵심 역량 강화 및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어 특수가스 제조 종합메이커로 거듭나고 있다.

특수가스

는 일상 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분야이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수가스의 기술력에 따라 반도체 품질의 신뢰도가 좌우될 만큼 아주 중요한 소재이다. 좀 더 가까운 예로 휴대폰에도 특수가스가 사용되는 것을 들 수 있다. 휴대폰 액정의 휘도(밝기)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암모니아의 순도이다.

원익머트리얼즈 인사총무팀 김광중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익머트리얼즈의 제품인 NH₃(고순도 암모니아)는 99.99999% 즉, 순도 N7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익머트리얼즈는 소리 없이 강한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특수가스 제조업계의 종합메이커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원익머트리얼즈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한 이후, 꾸준히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특수가스 분야의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탄탄한 성장 기반을 닦아왔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출범 몇 개월 만에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이루어냈다.

독립 출범 8개월 동안 다양한 성과, 안정적 발전 토대 마련

지난 6월 27일, 가스안전공사로부터 통합경영시스템 인증서를 획득한 것이 최근 이루어낸 성과중 하나다.

이번에 획득한 통합경영시스템(SEQMS31001:2002)이란 2002년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2003년 환경경영시스템에 이어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18000)을 추가 인증받음으로써 품질, 환경, 안전·보건을 하나로 묶는 선진 경영시스템이다.

품질, 환경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평가 절차와 법규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심사받고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제 규격의 품질, 환경, 안전·보건 경영사업장임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8일 미국 팔라앨피의 VOLTAIX社와 GERMANE(GeH₄) 등 반도체용 특수가스에 대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특수가스 원

료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양사 간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기술 제휴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산업의 소재 공급업체로서 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벤처기업확인서를 취득한 것도 우수 기술을 인정받은 주요 성과 중의 하나이다. 지난 3월 KTRS(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모형)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술보증기금의 상위 3% 내에 드는 우수 기업 멤버로 선정되었으며 기술평가 등급도 'A'를 받음으로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다양한 세제 지원 및 금융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향후 5년 동안 법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혜택은 물론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혜택도 함께 받게 되었다.

원익머트리얼즈는 가스라는 특수 소재를 다루는 기업으로서 2002년 공장 건설 후 단 한번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에 힘을 쏟아왔다. 최근에는 무재해 3배수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함으로써 안전기업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무재해 4배수에 도전하고 있다.

이준열 대표이사는 "이제 5배수 목표 달성을 위해 전진하는 우리의 안전활동은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들로 산적해 있다. 차분하게 쉬운 것부터 하나씩 고쳐나가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강조하며 안전에 대한 간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주인 의식과 열정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하여

김광중 팀장은 단기간에 이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동력으로 '직원들의 열정'을 꼽았다. 공식 출범한 지 8개월째 접어들었지만 회사의 분위기는 회사가 출범하던 날의 열정과 의욕은 고스란히 유지해가고 있다.

"아토의 가스사업본부였을 때는 회사에 부속된 공장이라는 개념이 강했다면 지금은 본사가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자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주인 의식도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어요. 직원들의 사기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직원들의 표정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처럼 직원들이 초발 심을 잃지 않고 일에 매진할 수 있는 데는 이준열 대표의 남다른 직원사랑이 한몫을 하였다는 것이 직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원익머트리얼즈의 직원이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CEO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 매달 생일을 맞은 직원들이 CEO와 함께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CEO와 직원들의 만남은 노사간의 벽을 허물고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회기에 애한 회사 분위기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업무가 끝난 후 직원들끼리 단합하여 족구대회, 농구대회 등을 수시로 갖고 있다. 물론 회사가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체육대회는 아니지만 회사 차원에서 우승팀에게 시상금을 지원할 정도로 직원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 직원들간의 활발한 교류는 부서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협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곧 '규율 속의 자율성'이라는 원익머트리얼즈의 독특한 기업 문화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지난 8개월 동안 숨 거뻐 달려오면서 조직의 재정비와 기술력 확보, 인재 관리까지 특수가스업계의 종합메이커로서 내실을 다져왔다면 이제는 협차게 박차고 나아가는 일만 남았다.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유수의 특수가스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멀지 않은 듯하다.

글_이락희 프리랜스 작가 사진_아임스튜디오



+ + +

+ + +

+ + +

+ +

■ 세계 최초 HD급 H.264 포맷 재생 가능

■ HDMI 출력으로 간편하게 고화질,
고음질 영상 재생

■ 업계 최초 S-ATA방식 하드디스크 지원



[디비코]

세계 최초 HD급 H.264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발표

디비코(주)는 최근 제품 발표회를 통해 HD급 영상의 차세대 압축 표준인 H.264를 지원하는 티빅스(TVIX) 시리즈의 최신 제품 2종 등 모두 다섯 종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고가 듀얼코어 PC 사용 않고도 H.264 고화질 동영상, 1080p 동영상 재생 'OK'

이번에 디비코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티빅스 시리즈는 듀얼코어 PC에서나 원활하게 재생이 되는 H.264 포맷 HD 동영상을 매끄럽게 재생하는 것이 특징. H.264 포맷은 고화질 영상용 차세대 멀티미디어 형식이며, 기존 HD화질을 그대로 두면서 그 크기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풀HD인 1080p 출력을 지원하고, 비디오와 오디오 신호 전송을 하나의 케이블로 보내주는 HDMI 출력을 지원, 설치의 간편화는 물론 풀HD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H.264와 HDMI를 동시에 지원하는 HD급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는 이 제품이 세계 최초로, 차세대 기기로의 진화와 동시에 세계 시장을 선점 공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속 사진 보기 기능도 기존 제품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 하드웨어 가속기를 이용해 대용량 디지털 사진을 고속으로 읽어 들여 부드럽게 재생한다. 여기에 저장 매체는 전통적인 방식인 IDE가 아닌 최근 HDD 시장에서 주류로 부상한 시리얼 ATA 방식의 HD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디자인 요구 충족시키기 위해 두 가지 모델 출시.

최신 칩셋을 장착한 티빅스(TVIX)시리즈는 'M-4100SH'와 'M-5100SH' 두 가지 모델로 선보인다. M-4100SH와 M-5100SH는 성능과 기능은 동일하지만 소비자의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디자인을 달리한 것이 차별점이다.

M-5100SH는 티빅스의 고유의 원통형 디자인에 검정색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움과 거실용 기기로서의 면모를 살렸으며, M-4100SH는 전통적인 박스 형식의 디자인에 전면에 하이그로시 검정색 베젤을 사용하여 최근 디지털TV

디자인에 부응하고 이동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4100SH의 경우 디지털 튜너를 추가할 수 있는 부가 슬롯을 내장하고 있다.

무선 랜과 HD튜너로 확장성도 뛰어나

이번 신제품은 저렴한 USB 외장형 모듈을 추가하면 무선 네트워킹이 가능하다. 집에 무선 공유기가 있는 경우 2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며, 무선으로 PC에 접속하여 PC에 있는 각종 미디어 파일들을 재생하거나, FTP로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추후 디지털 튜너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모델에 맞는 '티빅스 튜너'를 추가하면 HD TV 방송을 시청하고 녹화하는 PVR(개인용 비디오 레코더)기능을 가지게 되어, 만능에 가까운 기기로 탈바꿈한다. 현재 이 기능은 개발 중이며 7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M-5101P라는 모델로 PVR 셋탑박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디비코는 후속 PVR제품인 M-5110SH도 이 시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시장 주도를 위한 다른 신제품들

이외에도 디비코는 히트작인 티빅스 M-5000U의 뒤를 이을 M-4000SA, 여기에 맞는 튜너 확장 옵션인 T410, 그리고 아예 튜너를 내장한 PVR인 M-4010SA 등을 선보였다. 이 신제품들은 보다 전통적인 디자인에 실용성과 이동성, 가격 경쟁력, SATA HDD 지원 등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동영상 플레이어 시장에서 디비코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디비코의 이혁 대표는 '이번 신제품 출시로 굳이 듀얼코어 PC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도 거실에서 손쉽게 H.264 고화질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여기에 HDMI, SATA 등을 채택하여 최근 디스플레이와 저장장치를 지원함으로써, 최고의 화질과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급 플레이어로 거듭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런 이노베이션을 계속하고 기능을 더 통합하여, 거실 한켠에 꼭 놓고 싶은 플레이어를 만드는 회사로 남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디비코(주)는 현재 'TVIX'라는 자체 브랜드로 미국, 유럽 등 2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장경환 과장_디비코





문경의 랜드마크가 될 이름

[신원 아침도시]

문경의 남쪽 관문인 모전동은 문경시가 첨단 주거도시로 계획하고 있는 신택지개발구역. 앞으로 단계적인 개발을 거쳐 선진국형 복합주거타운으로 변모할 이곳은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한 상주인구 3000여 명의 주거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그 첫 주자로 나선 곳이 바로 신원종합개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아침도시'로 프리미엄 아파트의 이미지를 구축한 신원종합개발 '아침도시'의 신축이현재 진행중이다.

모전동아침도시는 총 4,886평의 부지에 343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34평형, 47평형, 63평형 등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 것이 특징. 내부 마감재나 인테리어, 외부 조경 등이 수도권의 고급 아파트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설계되었다는 것이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윤종태소장의 설명이다.

“아파트 건설 전 시장 조사를 겸해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을 모두 둘러보았습니다. 대부분 지은 지 7~8년 이상 된 건물들인데다 소형 평형 위주로 규모도 작았습니다. 150세대 정도가 그나마 가장 큰 규모더군요. 하지만 이 지역에도 분명 고소득층이 있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큰 지역이라 프리미엄 아파트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상류사회의 초대'라는 콘셉트에 걸맞게 아주 고급스러운아파트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인구 8만이 채 안 되는
조그만 도시 문경.
이곳 주민들 사이에서는 요즘
신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한 아파트가 화제다.
신원종합개발이 모전동에서 야심차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아파트
'아침도시'가 그 주인공.
문경의 주거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최고의 아파트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뜨거운 피약별
아래서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모전동 공사 현장을 찾았다.

‘모델하우스 오픈 때는 무려 1만 여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는 윤 소장은 ‘아침도시’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의 아파트 눈높이가 확연히 높아질 것 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공사가 시작된 것은 작년 4월. 설계 변경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현장 작업은 5개월 뒤인 9월부터 이루어졌다. 현재 골조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전체 공정률은 지난 5월 말 기준 33.5%에 이른다. 원래 계획이었던 29.3%에 비하면 많이 당겨진 셈이다. 윤 소장은 ‘입주는 내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올 겨울 날씨가 도와준다면 공기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한다. 현장 직원은 윤종태 소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25년까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전뺨가 굵은 베테랑들이다. 직원들로부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졌다’는 평을 듣고 있는 윤 소장은 뛰어난 통솔력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공기와 품질, 안전 등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특히 품질과 안전은 그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강조하는 사항. 정기적인 안전 교육은 물론 정리정돈은 모든 작업자들이 지켜야 할 필수 항목이다. 자재나 도구 등 현장에서 쓰이는 모든 물건은 반드시 처음부터 제 자리를 찾아 배치하되 쓰고 난 후에도 반드시 그 자리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 현장의 철칙이다.

“적치된 물건들이 쏟아져 내리거나 발에 걸리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여기 저기 자재들이 널려 있는 모습은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요, 현장에 나가 수시로 체크하기 때문에 작업자들도 항상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동별, 분야별 담당자를 정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한 분업화 시스템도 안전사고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인 원동력. 각 분야 전문가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팀워크 역시 본사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최고 수준이다. 현장의 만행 격으로 차분하면서 세심하게 공정을 행하는 정재용 과장, 각종 문서처리에 뛰어나 ‘공무룡’으로 불리는 김태근 대리, 활달한 성격으로 현장 직원들에게 인기가 높은 강성진 대리, 토목 담당으로 하천 물막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공기에 기여한 이준호 대리는 대표적 인 전문가들. 또한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조여행 반장이나 합리적인 일처리로 소문난 설비담당 김홍배 대리, 전기담당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분위기메이커 김용복 대리, 팀의 막내로 굵은 일을 도맡는 임희찬 사원, 관리를 담당하는 최승현 사원과 홍일점인 강병에 사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인재들이다. 휴일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는 꿈도 꿀 수 없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까지 견뎌내야 하지만 이 지역 랜드마크가 될 최고 수준의아파트를 짓는다는 자부심으로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 한여름 태양보다 뜨거운 그들의 열정은 ‘아침도시’의 성공을 예감하게 한다. 그들은 분명, 이 지역의아파트 역사를 새로 쓴 인물들로 기억될 것이다.

글_최선희 프리랜스 작가 사진_김성호 사진가





[VLK]

자체개발 ‘엑시머 램프’,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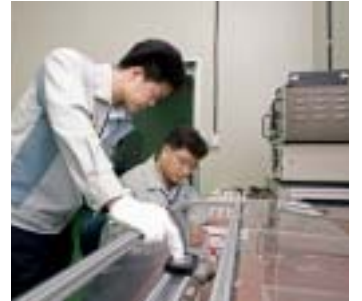
엑시머 램프 란 엑시머 UV 파장을 이용한 램프로, 빛을 쏘임으로써 이 물질들을 증발시키는 원리다. 저압 UV램프가 세정하는 데 3분이 걸린다면 엑시머 램프는 3초에 끝나 에너지 효율과 공정 효율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생산량 증가에도 효과적이다.

이 기술의 국산화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지만 업계에서는 대단한 뉴스거리.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일본 업체의 독점 공급 시스템을 깨뜨림으로써 반도체나 LCD 생산업체들은 자연스럽게 원가 절감 효과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엑시머 램프는 미개척 분야였다. 몇 해 전 다른 업체에서 국산화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것이 전부였다. 이처럼 까다로운 기술에 VLK가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어 성공을 거둔 것. 이들의 성공은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산업램프 업체와의 경쟁이었다는 점에서 흥미롭지만 겨우 4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런 성과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엑시머 램프의 개발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3년 10월, ‘중국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는 아용한 회장의 지시가 계기였다. VLK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엑시머 램프에 관심을 가졌고, 이를 위해 주윤관 부장을 필두로 최병노 과장, 박창호 과장, 강용기 주임 등 4명의 전문가를 모아 엑시머 램프팀을 만들었다.

지난 1992년 설립 이후 램프산업의 기술 진화를 주도해 온 (주)VLK, 지난 해 1월에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엑시머 램프’를 LCD 생산라인에 납품하면서 또다시 업계를 놀라게 했다. 엑시머 램프는 반도체나 LCD, TFT, 컬러 필터의 세정 공정에 쓰이는 것으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VLK의 자체 기술로 개발이 되고 생산된 제품의 성능에 대한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수요도 점차 늘고 있어 VLK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수 정예의 팀이 꾸려지기는 했지만 참고할 만한 아무런 기초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의 개발은 쉽지 않았다. 결국 수명이 다해 폐기처분된 램프를 얻어다 연구를 시작해야 했다.

“매일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냈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모두들 회사에서 먹고 자며 살다시피 했어요. 그 덕분에 비교적 빨리 램프를 만들어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윤관 부장은 ‘우리가 개발한 램프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던 일본 업체의 전용 파워 서플라이와는 호환이 안 돼 점등조차 시킬 수가 없었다.’며, ‘결국 호환이 가능한 램프를 따로 개발하면서 동시에 파워 서플라이 개발에도 착수했다.’고 개발 과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엑시머 램프의 국산화를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했다. 이미 한 번 겪었던 국산화 실패 경험 때문에도 그렇지만 현재 쓰고 있는 일본 제품에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냐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전 부장은 ‘이런 회의적인 시각 때문에 제품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을 인정받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아쉬워했다.

“일본업체가 램프와 한 세트에 공급하는 파워 서플라이는 시중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제품 이거든요. 그러니 램프를 점등시킬 방법이 없었던 거죠. 결국 LG 필립스의 생산라인에서 직접 테스트를 받아야 했는데, 그 쪽 생산 스케줄에 일일이 맞추어야 하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품질 테스트하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마침내 2006년 1월부터는 정식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일본 제품에 비해 값은 싸지만 기술은 비슷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거래처를 조금씩 넓히고 있는 중이다. 빠른편을 올 여름부터는 PDP 분야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판매되는 엑시머 램프는 750mm 길이이며, 1600mm의 대형 사이즈도 현재 개발이 완료돼 성능 시험중에 있다.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산업자원부 부품소재 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개발 지원금도 받게 되었다. 앞으로는 램프와 파워 서플라이, 램프를 장착하는 하우징까지 모두 함께 공급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중이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메탈 할라이드 램프와 자동차 전조등의 대명사로 통하는 HID 35W램프에 이어 산업용램프에서 또다시 놀라운 성과를 거둔 VLK. 끊임없이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해 내는 이들의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



Wonik Brief News

(주)원익, HTK 미용성형용 FILLER 국내 총판권 계약 체결

(주)원익은 지난 2007년 5월 9일 Human Tissue Korea사와 미용성형용 Filler 국내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사가 3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상품화에 성공한 미용성형용 Filler인 Skin Plus(상품명)는 주름제거, 여드름흉터, 코높임 성형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모 물질로서 기존 수입품의 성분이 주로 히알루론산인데 반해 동상품은 히알루론산과 Human Tissue를 세계 최초로 혼합 개발에 성공한 상품으로서 기존 수입품 대비 지속력 등 성능이 뛰어나 향후 국내 시장에서 수입품 대체효과를 것으로 기대된다. (주)원익은 본계약 체결에 따라 2007년 하반기 중 식품의 약안전청의 인증을 취득한 후 본격 시판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주)원익, Channel Letter용 LED 독점판매권 계약 체결

(주)원익은 6월 8일 LED조명 제조의 선두업체인 LUMENS와 Channel Letter용 LED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차세대 조명으로 각광받는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은 90퍼센트까지 에너지가 절감되는 효



과 이외에도 수명이 길고 수온을 쓰지 않아 친환경성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광고용 형광램프의 시장규모는 연간 800억으로 추정되며, LED로 교체하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원익, 직급별 대표이사 도시락미팅 실시

(주)원익은 본사 회의실에서 지난 4월 23일~4월 27일까지 대표이사와 격이 없는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해 직급별 도시락미팅을 실시하였다. 금번 도시락미팅은 일자별로 차부장급, 과장급, 대리급, 주임사원급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대표이사 보고 받는 위치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원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의 한 창구로써 이루어졌다. 원익은 건의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1주안에 검토하여 타당한 건에 대해서는 1개월 안에 처리를 하고 있으며, 지하창고 확충, ERP시스템 개선, 여직원 휴게실 환경개선 등 다수의 건이 처리되었다. 이번 도시락미팅을 계기로 회사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계층간 이해의 폭을 좁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아토, 제 2회 한마음 등반대회 개최

(주)아토는 지난 5월 4일,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에서 '제 2회 한마음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등반대회는 임직원의 사기 진작 및 화합 도모를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대표이사 이하 약 14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였다. 청계산 등반은 약 3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등반 완료 후 오리 바비큐 등으로 식사를 하며 경품 추첨의 시간을 가졌다. 금번 등반대회는 작년에 이어 2회째 개최되었으며,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친 직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단합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었다.



(주)아토, 팀장급 리더십 교육 및 신입사원 교육 실시

(주)아토는 지난 5월 10일~12일, 2박 3일간 경기도 오산시 소재 삼보인력개발원에서 팀장급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교육의 목적은 조직 내 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조직 내 발생하는 갈등을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조직 풍토를 조성하여 업무 환경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 금번 교육에서는 리더십과 코칭 스킬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각 부서의 팀장급 인원 19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주)아토는 리더십 교육에 이어 2007년 6월 14일~16일 신입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신입사원 교육은 경기도 용인시 기술보충기금에서 이루어졌으며, 2006년 5월 2일 입사자 중 주임급 이하의 신입사원 22명이 참석하였다.



(주)원익머트리얼즈, 통합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 3월 21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통합경영시스템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이번에 획득한 통합경영시스템(SEQMS 31001)은 지난 2002년 획득했던 기존의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에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GS/OHSAS 18001)을 추가한 국제규격 수준의 시스템이다. 원익머트리얼즈는 특수가스의 당면 과제인 안전보건 분야와 환경 분야에 대한 평가들의 절차와 법규관리 등의 기존 프로그램을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심사받아 이번에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국제 수준의 품질, 환경 및 안전 보건 경영사업장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벤치기업확인서 수여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최근 'F2/N2 혼합가스 제품개발 및 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연구보고서에서 KTRS(기술보충기금 기술평 가보형)에 의해 기술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술보충기금의 상위 3퍼센트내 우수기업 멤버로 선정됨과 동시에 기술평가등급 'A'의 인증서 수여 및 기술성 우수로 평가받아 벤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치기업확인서를 수여받았다. 이에 따른 세제 지원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20조에 의거 5년동안 법인 소득세, 재산세, 종토세의 50퍼센트 감면 혜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3항, 제120조 3항에 의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융 지원에서도 코스타 등록 심사시 유가증권협회 등록 규정에 의거 우수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등 벤치기업육성에 관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아이피에스, 2007년 축구리그 결승전 실시

(주)아이피에스는 5월부터 7월초까지 회사 부서대항 축구리그전을 실시하였으며, 7월 5일에는 축구리그 결승전과 함께 간부대 사원, 아이피에스 고객지원팀 대 아토 고객지원팀간의 친선경기를 포함하여 총 4게임이 치루어졌으며, 결승전에는 선행개발팀&영업 연합팀과 LCD본부가 진출하여 전후반 1:1로 비겨 승부차기 끝에 LCD본부가 승리하여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이 날은 리그 결승 및 친선경기를 치루는 동안 숯불 삼겹살구이 등 먹거리와 함께 단체회식을 겸하였으며, 스포츠에서의 열정과 패기를 업무에 있어서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기를 전 임직원이 다짐하였다.



신원종합개발(주), 비전 선포식 실시

신원종합개발(주)는 지난 4월 2일 그룹 대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덕성과 창조적 근면성을 바탕으로 2012년 매출 5천억 경상이익 250억을 달성하여 조직 구성원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는 내용의 비전 선포식을 실시하였다. 점점 치열해 저기는 건설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고자 전 직원의 열망을 모아 1인 1비전 제안을 통해 회사 비전을 정하고 이를 모두가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임직원 가족들에게 대표이사의 서신을 발송하여 회사의 목표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였으며 참석이 어려운 일부 현장 직원을 위해 선포식 전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사내 전자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당사는 비전 선포가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신원종합개발(주), 안전기원제 실시

신원종합개발(주)는 지난 5월 31일 대표이사 및 본사 임·직원, 현장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비전 달성에 대한 결의와 전 현장의 무재해 달성을 염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실시하였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록교 붕괴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당사는 전 임·직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2007년 무재해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번 기원제를 통해 다시 한번 전·임직원의 단합과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한미열린기술투자(주), 투자사 (주)상보와 (주)디지털시스템스 코스닥 심사 통과

한미열린기술투자(주)가 투자하였던 (주)상보와 (주)디지털시스템스가 코스닥 심사 통과를 마쳤다. (주)상보는 2005년 11월에 투자한 업체로서 미디어용 over-wrapping 필름제조 전문업체로서 2006년 매출액 573억에 당기순이익 47억을 달성한 우량 중소기업이다. 한미열린기술투자(주)는 3/4분기 이후 거래를 통해 높은 이익 실현이 예상된다. (주)디지털시스템스는 2006년 9월에 투자한 업체로 주제품인 터치패널을 통해 2006년 매출액 252억과 당기순이익 81억을 달성하였으며 2007년 약 540억 원의 매출 달성을 예상하고 있다. 첫 거래일인 7월 4일 이후 당사의 이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익그룹, 전체 임원 워크숍 실시

원익그룹은 2007년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용한 회장을 비롯한 그룹 전체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상반기 임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강원도 평창 소재 숲속의 아침 펜션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새롭게 원익 가족이 된 임원 및 각 계열사 임원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산행 및 골프대회가 함께 실시되어 모든 임원들이 단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제 3기 원익배 십단전, 예선을 넘어 본선으로



신의 경지 9단을 넘어 10단으로 향하는 원익배 십단전

제 3기 원익배 십단전은 5월 31일까지 예선을 벌여 본선 진출자 39명을 뽑았는데 이들은 전기 4강 멤버(안조영 9단, 백홍석 5단, 최철한 9단, 송태곤 8단)와 후원사 시드 이창호 9단 등과 함께 44강이 참여하는 본선과 결승에서 본격적인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개막식에서 원익그룹의 이용한 회장은 축사에서 ‘지난 2차례의 대회를 거치면서 유명 기전으로 자리 잡은 원익배 십단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향신문사 고영재 사장은 대회를 통해 ‘의미깊은 십단전에서 참가 기사 모두가 뛰어난 기력을 발휘해 명국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재)한국기원 주관, (주)바둑TV와
(주)경향신문사 주최, 원익그룹 3개사
(주)원익, (주)원익쿼츠, 신원종합개발(주)가
후원하는 원익배 십단전 3기가
지난 5월 29일 개막하였다.



지난 2005년 7월 제 1기 원익배 십단전, 2006년 7월 제 2기 원익배 십단전이 열린 이후 이번 3기째를 맞는 원익배 십단전은 예선전부터 참가 기사들 간에 치열한 승부가 벌어져 예상을 뒤엎는 이번이 속출하며 흥미와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국수’ 윤준상 6단을 비롯해 ‘후지쓰의 사나

이 박정상 9단, ‘야전사령관’ 서봉수 9단 등이 줄줄이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이 바로 그것.

본선 및 결승은 2007년 7월말부터~2008년 2월까지 열릴 예정이며 바둑TV에서 28주간 45회 방송(재방송 포함 총 135회)을 하여 많은 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 하였다. 본방송은 매주 월/화(22:00~24:00) 예정이며 준결승 및 결승 3번기는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3기부터는 경향신문에 기보게재 및 해설란을 신설 대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년간 주5회 게재) 한편 원익배 10단전의 우승상금은 3500만 원이며, 제한 시간은 각자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진다.

지난 제2기 원익배 십단전의 경우 바둑팬들의 많은 관심속에 진행되어 안조영 9단이 백홍석 5단을 물리치고 십단위에 등극하였다. 안조영 9단은 생애 최초로 본격기전 타이틀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고 원익배 십단전은 바둑 매스컴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회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3기 원익배 십단전에서는 어떤 기사, 어떤 인물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인지 그 누가 십단의 영광 안게 될 것인지 기대된다. 아울러 원익배가 안정 속에 확고한 위상을 다지는 대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IPS의 생존전략, 경영혁신과 원가혁신을 펼치며



기업의 평균수명은 15년

기업의 평균수명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놀라운 속도로 줄어들었다. 1935년 90년이었던 기업의 평균 존속 연도가 20년만인 1955년에는 다시 45년으로 절반이 줄었고 1975년에는 다시 30년까지 떨어졌다. 지난 1995년에는 22년까지 내려와 급기야 2005년의 경우 평균 15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맥켄지 컨설팅—

1977년도에 미국의 100대 기업 중, 1970년도에는 37개만 생존하였고, 70년이 지난 1987년에는 18개 기업 (GE, Ford, GM, P&G 등)만 생존하고 새로이 82개 기업이 100대 기업 (IBM, HP, Motorola 등)에 진입하였다. 한국의 경우 1965년 매출 100위권 소속기업 중 2004년 생존기업은 12개뿐이다.

이처럼 기업이 경영을 통해 존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인한 이익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이익창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원가의 혁신적인 절감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게다가 현재 우리는 D-RAM 가격의 하락, 플래시메모리 기술 평준화에 의한 수요 급감, 원

재료비 인상, 시장품질 문제의 대두 등으로 설상가상의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에 우리는 극한 경영혁신만이 IPS 생존전략임을 인지하고,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원가혁신위원회를 구성 5월 3일 KickOff를 시작으로 전사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가혁신위원회는 원가혁신활동의 주체인 원가혁신 위원장 (경영지원본부장)을 필두로 총 6개 팀(재료비 절감 팀, 재고 자산 축소 팀, Q-Cost 절감 팀, 제조리드타임 단축 팀, 개발비 절감 팀, 직/간접비 절감 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각 팀은 목표달성의 의지에 찬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팀의 구성은 극한 원가혁신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Theme들을 의미하며 각각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 및 목표를 수립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첫 번째 Theme로는 재료비 절감 부문이다. 재료비 절감 Theme의 중점 추진 과제로는 설계 최적화, 저가형 부품개발, 부품 국산화 과제를 설정하였다. IPS는 내실을 다지며 원가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재고자산 축소 부문이다. 재고자산 축소 Theme의 Goal은 2008년 하반기 원자재 재고 Zero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고 운영 비용 절감 구매 Lead Time 단축, 나아가 고객 단 납기 대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는 Q-Cost 절감 부문이다. Q-Cost 절감 Theme는 시장 품질의 안정화로 클레임 코스트를 줄이고 장비의 Set up time 단축, Sign off 기간 단축, install, Warranty 비용 절감, 내부 유실비용 절감을 추진 과제로 설정하여 고객 만족 및 품질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네 번째는 제조 Lead Time 단축 부문이다. 제조 Lead Time 단축 Theme는 대외적으로 고객의 단 납기 대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해 Assembly Time, Test Time 단축과 더불어 업무 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개발비 절감 부문이다. 개발비 절감 부문은 시장성 있는 제품의 코스트 다운 설계를 목표로 JDP 설비 조기 안정화 및 성공, 실패비용 최소화, 개발비 최소화, 개발단계 최소화를 통한 효율적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직, 간접비 경비 절감 부문이다. 직, 간접경비 절감은 제조에 투입되는 소모성 Part 절감, 유틸리티, 간접경비 절감을 목표로 하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소한 소모 비용도 줄이는 전사원의 절약 정신의 체질화를 목적으로 한다.

6개 Theme별 추진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각 팀별 월 단위 세부목표와 목표 별 추진 담당자를 구성하였고, 6월 13일 현재까지 7차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목표 대비 정상적인 진척율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1차적으로 2007년 말까지 체질 개선과 경영혁신의 기틀을 다지고, 2008년에는 17퍼센트의 경상이익을 목표로 매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 원가혁신의 기회로 우리 IPS가 Global 기업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원가혁신 활동의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활동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IPS의 평소 문화를 경영혁신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것이다. 아울러 모든 팀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과를 통해, 전 사원의 원가혁신 마인드를 스스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한용 과장 IPS

나의 혁신 철학은 동기부여와 끊임없는 개선

솔개의 환골탈태

솔개는 가장 장수하는 조류로 최고 약 70세의 수명을 누린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장수하려면 40세가 되었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대로 죽든가, 아니면 반년에 걸친 갱생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부리를 바위에 쪼아 부리를 깨뜨려서 빠지게 만든 다음 새로 난 부리로 발톱과 깃털을 다 뽑아버리는데, 이리하여 반년이 지나 새 깃털이 난 솔개는 힘차게 날아올라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된다고 한다.

‘適者生存(적자생존)’, 자신의 깃털을 뽑은 솔개처럼 기업도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 현실화 되고 있다.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는 기업환경, 글로벌 경쟁의 무한경쟁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변화에 익숙한 기업뿐이다. 기업개혁의 대명사로 불리는 도요타의 최대의 적은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오늘의 도요타가 타도의 대상이라고 한다. 이미 세계 일류기업인 자기 자신을 목표로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하기 때문에 매년 괄목한 만한 재무성과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나의 혁신 철학은 동기부여(Motivation)와 끊임없는 개선(Continuous Improvement)이다.

첫 번째로 세상의 모든 일은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억지로 먹일 수 없듯이 스스로 물가를 찾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제도라도 100퍼센트의 효과를 낼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두 번째로 끊임없는 개선 의식이다. 끊임없는 개선(Continuous Improvement)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또한 조직 내 특수한 팀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전 사원의 참여로 이루어진다(People Involvement). 델 컴퓨터 전 회장 마이클 델은 '절대 쉬지 말아야 한다. 항상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코 혁신이나 위험 감수를 멈추지 말고 팀 전체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단순히 일회성의 개선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큰 의미가 없다. 목표를 명확하게 하여 달성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높은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져야 할 것이다. 잭 웰치는 '혁신이란 차를 운전하면서 타이어를 갈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자기 혁신은 긴 여정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전세계 모든 회사가 앞 다투어 IPS의 경영혁신 시스템을 배우고 연구할 그날을 꿈꾸면 새로운 힘이 솟는다. 오늘도 고통을 감수하며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가 되어본다.

이한용 과장 IPS

세계 관측기 시장 1위를 지키는 난공불락의 기업, 바이살라 벤치마킹



바이살라 본사



습도 측정기 테스트하는 모습



바이살라에서 만든 기상 레이다

한 국 기상청은 대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 등 전국 6개 관측소에서 하루에 두 번 센서가 달린 풍선을 띄운다. ‘라디오존데(Radio-Sonde)’라고 불리는 이 풍선이 기온, 습도, 풍향, 풍속 등의 기상 정보를 감지해 지상으로 보내면, 기상청에서 취합해 ‘내일의 날씨’를 예보하게 된다. 개당 30만 원인 라디오존데는 30km 상공에 도달하면 기압 때문에 터져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기상청은 연간 16억 원이 소요되는 이 라디오존데의 80퍼센트를 핀란드에서 수입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100여 개 나라가 핀란드 산(産) 라디오존데를 이용한다. 이 기구는 ‘바이살라(Vaisala)’라는 핀란드 기업이 만든다. 바이살라에서는 라디오존데 외에도 풍향, 풍속, 습도, 천둥, 번개 등 각종 기상 정보를 관측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세계 기상 관측기 시장 1위이며, 특히 라디오존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퍼센트에 이른다. 전체 직원이 1000여 명인 중견 기업이 기상청이나 공항 등 수요층이 한정돼 있는 틈새를 파고들어 난공불락의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06년의 경우 매출 약 1억 9790만 유로(약 2374억 원)에 3410만 유로(약 409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지만 ‘노키아의 나라’ 핀란드에서는 세계 1위 휴대전화 회사인 노키아만큼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KOTRA 이승희 헬싱키 무역관장은 ‘첨단 기술을 가진 제조회사가 별로 없는 핀란드에서 바이살라는 노키아와 함께 아주 특별한 기업’이라며 ‘바이살라는 1970년대부터 독보적인 기술로 세계 시장을 평

정해 핀란드 사람들이 오래도록 애정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연 매출의 15퍼센트를 연구 개발비로 투자

바이살라는 핀란드 기상청에서 근무하던 빌로 바이살라 박사가 1936년 설립한 회사다. 라디오존데 개발에 골몰하고 있던 바이살라 박사는 연구비를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자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회사를 만들었다. 이런 창업 배경 때문에 연구 개발(R&D) 비용을 아끼지 않는 전통이 조성돼 있다. 해마다 연 매출의 15퍼센트 정도를 R&D에 쏟아 붓고 있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R&D비용이 연 매출의 25퍼센트에 이른 적도 있다.

한국 증권선물거래소가 2005년 상장사 544개사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 대비 R&D비 비율이 2.36퍼센트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바이살라가 R&D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 알 수 있다. 에릭슨 핀란드 지사장을 하다가 지난해 바이살라 최고경영자가 된 퀴엘 포르센 사장은 R&D를 우대하는 바이살라의 전통을 ‘R&D에 대한 열정이 문화로 형성돼 있다.’고 표현했다. R&D는 신제품 개발로 이어지고, 이는 또다시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이어진다. 바이살라는 최근 습도 측정기를 반도체 산업에 접목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반도체 공장 등에서 무균복(無菌服)을 입고 작업하는 ‘홀린룸’에서는 적당한 습도 유지가 필수이기 때문에 습도 측정기가 필요하다. 이 회사 홍보담당 매니저 리사 아탈루토 씨는 ‘우리 회사의 습도 측정기는 정밀 전자 분야에서 과거 30년 동안 이용되고 있던 습도 측정 방식을 대체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파주시

LG필립스 LCD 공장을 비롯해 한국의 주요 반도체 공장에서도 바이살라 습도 측정기가 설치돼 있다. 또 바이살라는 기상 정보를 각종 산업에 응용해 시장을 키워 가고 있다. 비가 와서 행사가 취소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씨 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가 바이살라의 고객이 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끊임없는 관련 기업 인수합병으로 요새 같은 기업을 더욱 단단히

바이살라는 1985년부터 11번의 인수합병(M&A)으로 규모를 키웠다. 이 회사가 인수한 회사들은 모두 기상 관측 관련 업체들이었다. 바이살라에 없는 기술을 갖고 있거나 기술이 우위라고 판단되는 회사들이 인수 대상이었다. M&A는 바이살라의 회사 규모를 키우는 효과 외에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흡수’하는 효과도 있다.

포르센 사장은 ‘세계 기상관측기구 시장의 규모는 연 6억 유로(약 7200억 원)로 추산된다.’며 ‘파이가 작아서 2등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이살라는 인력 유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인력 유출과 그에 따른 기술 유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의 정보통신(IT) 기업들이 보면 의아해 할 대목이다. 포르센 사장은 인력 유출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반도체는 경쟁 회사가 많지만 이 분야에서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상 관련 분야 엔지니어들은 바이살라에서 일하는 게 꿈이다. 그래서 한번 입사하면 거의 이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 회사의 이직률은 5퍼센트대로 낮다고 할 수 없지만 엔지니어 쪽은 1퍼센트 미만 수준이라고 한다.

71년 동안 CEO 4명뿐

바이살라는 71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지만 역대 CEO는 4명 밖에 없다. 바이살라 역대 최고 경영자

(CEO)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23.3년이다. 창업자인 빌로 바이살라가 33년 동안 CEO로 있었고, 전문 경영인 출신 2대와 3대 CEO도 각각 23년과 14년 동안 회사를 이끌며 장수했다.

바이살라 측은 CEO들이 장수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 ‘경영 성과가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대 CEO인 위르요 토이볼라는 23년 동안 매출을 50배 이상 늘렸다. 3대 CEO인 페카 케토넨도 1992년 취임 당시 6000만 유로(약 720억 원) 수준이던 매출액을 2005년에는 1억 9790만 유로(약 2374억 원)로 늘렸다.

이 회사의 대주주인 창업자 가족들의 성향도 CEO들의 장수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다. 바이살라에서 19년 동안 재직하고 있는 케네스 포스 이사는 ‘대주주들이 회사가 일관된 경영 이념 아래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CEO가 오랜 기간 재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바이살라는 1990년 핀란드의 경제 불황과 막대한 돈을 투자한 미국 지사의 사업 부진이 겹치면서 회사 창립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회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전체 직원 700여 명 중 120명을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하지만 당시 CEO였던 토이볼라는 자리를 지켰다. 대주주들은 그가 23년 동안 회사를 성장시킨 공을 인정해 정년이 끝나는 1991년 말까지 기다렸다가 새로운 CEO로 교체했다.

포르센 사장은 ‘CEO를 잘 교체하지 않는 전통 덕분에 경영진이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먼 미래를 보고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며 ‘바이살라가 기상관측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밑바탕에는 이런 전통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황진영_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라디오 존데



(주)원익 경영지원실 식구들, 토요일 오전을 황금처럼 사용하는 방법을 찾다!



토요일 오전,
밀린 잠을 몰아 자는 것을 유일한 건강 관리법으로 여기며
느지막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없는 썸 쳐도 좋을 시간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황금 같은' 토요일 오전이 되기도 한다.
원익의 식구들에게 토요일 오전은 황금 같은 가치를 지닌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그것이 소비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큰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모두 등교한 시간이라 적막하기까지 한 보육원에 이른 아침부터 때 아닌 망치질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소리는 이내 스테레오로 발생하기 시작한다. 뒤편에는 어른 키보다 높은 담 위로 부서진 가구들을 던져 올리고 정리하느라 부산하고 식당과 수돗가에서도 물소리 속에 웃음소리가 간간히 섞인다. 토요일 아침, 달콤한 낮잠의 유혹을 떨쳐내고 경영지원실 식구들이 찾은 곳은 포이동 사회복지법인 강남교육원이다.
(주)원익에 서는 지난 3월부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희망팀, 사랑팀, 믿음팀 등 3개의 봉사팀을 꾸리고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아침마다 번갈아가며 활동을 시작했다. 오늘은 경영지원실 식구들로 구성된 희망팀의 두 번째 방문일이다.

오늘의 미션은 기본 청소를 비롯하여 아이들 방에 방충망 달고, 야외용 의자에 찌든 때를 씻어내고, 뒤편에 쌓인 쓰레기 정리하는 일이다.

“토요일 오전 시간은 어영부영하다 보면 금방 지나버리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어 너무 뿌듯해요.”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청소뿐만 아니라 시설 개보수까지 참여하는 노동이라 몸은 각오(?)했던 것보다 더 힘들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이다. 최종탁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시작한 봉사 활동은 직원들의 호응 속에 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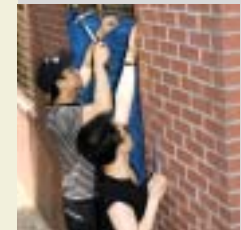
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한다.

“(주)원익은 지난 3월에 나눔 활동의 첫발을 내디딘 셈입니다. 직원들도 그동안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참여율이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울 만큼 호응이 높은 편입니다. 어떤 직원은 자녀들도 데리고 올 정도로 적극적이죠. 게다가 사내 게시판에 올린 봉사팀들의 활동 소식을 보고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직원들도 많아졌고 다른 계열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봉사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회사 분위기도 더욱 좋아졌다고 한다. 사무적인 모습에 익숙해 있던 동료들이 서로 맘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적인 면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동료에도 한층 두터워졌다고 한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봉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는 결코 거창한 시작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속적이고 꾸준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기금을 모아 연말에는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감장 담그기 축제를 열 계획이라고 하니 그들의 나눔 활동은 이미 끝을 정해두지 않은 장거리 여행을 시작한 셈이다.

글_이락희 프리랜스 작가 사진_아임스튜디오



[방충망 달기]
아이들의 방마다 방충망을 다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아이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고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원익 경영지원실 식구들은 힘써도 입기엔 환한 웃음이 배어난다.



[빨래 날기]
빨래는 세탁기가 했지만 비르게 퍼서 내는 것은 우리의 몫. 아이들의 빨래를 날려서 잠시나마 가족들을 다시 생각해보며 푸근함을 느껴보았다.



[가구 치우기]
창난꾸러기 아이들의 등쌀에 망가진 가구들을 분해해 뒤편에 올타리처럼 쌓아올리느라 봄날에도 한여름처럼 땀을 흘려야 했다.



[야외용 의자 씻기]
바깥에 너무 오래 방치해 둔 탓에 찌든 때가 너무 심해 아무리 씻어도 제 색깔을 찾아주기 힘들었던 의자들. 그래도 비누칠해서 열 번도 더 닦은 누나들의 정성을 조금은 생각해주며 즐거운 여름을 나길 바란다.



(주)원익퀴츠 이정규 사우 가족

싱그런 여름 향기와 상쾌한 바람 속을 거닐다

초여름 햇볕과 바람이 좋은 6월 초, 경북 구미에 사는
이정규(원익퀴츠 총무과) 씨와 아내 정명화 씨,
19개월 된 아들 민재 세 식구의 나들이.
오랜만에 집에서 조금 먼 문경으로 길을 나섰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드라마 촬영지를 향해 슬슬 걷기로 한다.

문경새재 도립공원 넓은 길을 따라 양손을 얹어, 아빠에게 맡긴 어린 민재는 걸음걸이가 아
직은 좀 불안하다. 그러나 간간이 양쪽을 번갈아 올려다보며 “엄마, 아빠” 만큼은
아주 또렷이 부르며 씩웃 웃어준다. 기분이 최고인 게 분명하다.

“민재는 밖으로 나오면 울지도 않고 참 잘 놀아요. 게다가 오늘은 아빠랑 같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잠시도 민재한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엄마 정명화 씨는 누구보다 민재가 좋아해서 다행이라면서도 촬영이
좀 부담스럽다고 한다. 한편, 이정규 씨는 전날의 야근으로 아직 피로가 다 안 풀렸는지 조금 졸린 듯한 모습
으로, 지난번 가족은 어떻게 했는지 이것저것 묻는다.

“총무과에 근무하다 보니까 매번 사보가 나오면 직원들에 나눠주느라 바빠요. 정작 저는 제대로 들춰보 지도
못하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잘 봐둘 걸~.”

그런데, 민재의 걸음걸이에 맞추다가는 오늘 내로 촬영을 끝낼 수 없겠다 싶어 아빠가 민재를 안고 서둘러
움직인다. 500미터쯤 산책길을 따라가니 KBS 드라마 촬영장이 보인다. 지난 2000년부터 대하 드라마를 촬
영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문경새재 제2관문 뒤 용사골에 자리잡고 있다. 1만 9000여 평의 부지에 왕궁 2동,
기와집 42동, 초가 40동 등이 들어서 있는 국내 최대의 사극 촬영장으로 지금은 KBS 대하 드라마 <대조영>을
촬영하고 있다.

민재네 식구들은 서민들의 초가부터 둘러보
기로 한다. 드라마 촬영이 없는 날이라 그런
지 다소 한적한 기운이 들었지만 식구들이
선 위치에 따라 사진 느낌은 아주 좋다. 민
재는 낮잠 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투정
도 없고 엄마, 아빠를 따라 강중강중 잘 따
라 걷는다. 이정규 씨와 정명화 씨의 눈에는
그 모습이 대견하기만 하다.

경남 마산이 고향인 이정규 씨 부부는 2004년 10월에
결혼했고, 2006년 11월, 이정규 씨가 원익퀴츠에 입
사하면서 구미로 이사했다고 한다. (주)원익퀴츠는 만
도체 기판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퀴츠(Quartz
Ware)와 반도체 및 TFT-LCD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세라믹(Ceramics Ware)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회사
로 경북 구미에 소재하고 있다. 어느 부서보다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는 총무과 업무상 연장 근무를 피하기
가 어렵다고 하는데, 게다가 이정규 씨는 술을 좋아해
서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술자리를 갖는다고 한다. 술
좋아하는 남편에 대해 묻자 아내 정명화 씨는 ‘못 말
린다’는 반응이다.

“한번은... 그 날도 술이 취해서 늦게 들어왔거든요.
분명히 얼굴 보고서 들어가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
나보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니 화장실
에서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잔 거죠. 내 참.”

혀를 차면서도 정명화 씨의 표정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눈치다. 인상만큼이나 서글서글한 표정이 느껴진다.

결혼 전 마산에서 옷 가게를 꾸리던 정명화 씨를 소개
받고는 어떻게든 환심을 사려고 옷집을 들어다주는
등 부지런히 ‘노력 봉사’ 끝에 결혼했다는 이정규 씨.
‘처음에는 아내가 저를 싫어했어요. 얼굴 색도 검고
우락부락하게 생겨서...’라고 털어놓는다. 하지만 남
편을 믿고 낯선 동네까지 싣듯 따라와 주고, 지금은
혼자서 민재를 키우느라 한창 힘든 대신에 회사일이
바빠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늘 미안하다고.

아무튼, 아내는 아내대로 민재 키우느라, 남편은 남편
대로 회사일로 서로 바쁜 일상에서 모처럼 가진 이번
나들이는 셋 모두에게 큰 활력소라고 한다. 무엇보다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민재에게 더 없이 좋은 보
약이 될 것 같다고. 민재는 양쪽 팔뚝으로 울긋불긋하
게 자국이 나 있어 얼핏 보기에도 안쓰러운데, 유난히
잘 웃어주고 시기면 손을 붙여 갖다 대는 ‘예쁜 짓’ 도
자주 선보이고, 핸드폰으로 멜로디를 들려주며 ‘춤
춰봐’ 하면 금세 팔과 엉덩이를 흔들며댄다.

“아토피 때문에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
받고 있는데, 이렇게 야외로 나오니 참 좋네요. 자주
나와야겠어요.”

엄마의 바람이다. 어른들을 따라 다니느라 배가 고팠
는지 민재는 엄마, 아빠 뒤편으로 주문한 밥과 반찬을
달라며 연신 손짓이고, 입에 넣기가 급하게 꿀꺽이다.
이제, 민재가 잠들지 않기를 바라며 마성면에 있는 진
남역으로 향한다. 지금은 폐광이 된 문경탄광
과 진남역 간의 철로를 달리는 철로 자전
거를 탈 참이었다. 두 발로 페달을 밟아
달리는 철로 자전거는 진남역-구량
리역, 진남역-불정리역 간 각각 2
킬로미터 되는 두 가지 노선이 있
는데 왕복 4킬로미터를 시속 30
킬로미터로 정도로 달릴 수 있다
고 한다.

그런데, 민재가 깊이 잠들어 버렸
다. 오늘 꽤나 무리해서 이곳저곳 걸
어다니고 춤추고 했으니 금세 눈을 뜰
것 같지가 않다. 철로 자전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진남교 아래 바람 좋은 물가로 내려가
돛자리를 깔고 앉아 정명화 씨가 준비해온 과일을
들며 잠시 더위를 식한다.

“민재가 좀 크면 아내도 결혼 전에 하던 옷 가게를 하거
나 자기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죠. 그때가 되면 예
전에 그랬던 것처럼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남편 이정규 씨의 바람이나 ‘회사일도 중요하지만 지
금보다 조금 더 민재랑 놀아주면 좋겠다.’는 아내 정
명화 씨의 바람이 문경의 순하고 깨끗한 바람처럼 슬
슬 풀려나길 바란다.

글_최지영 프리랜스 작가 사진_아임스튜디오





찬란한 유적

혹은 또 다른 삶에 대한
끝없는 이야기

여행?

그 단어만으로도 즐거운 상상이 가득하다.
'세상에는 머무는 자와 떠나는 자가 있다.'
나의 인생관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배낭을 메고 여행을 시작하지 10년이 넘었지만
난 여전히 새로운 곳을
갈망하기에 떠나는 자로 불리고 싶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나라 캄보디아. 그리고 세계 불가사의가 있는 앙코르 유적이 있는 씨엠리엵. 1999년 다녀왔지만 너무너무 강렬한 인상과 순박한 이들이 때문에 3년 만에 다시 찾아야했던 곳이다. 캄보디아는 수백 년 이어진 앙코르 왕국의 찬란했던 역사를 지니고 있었지만 14세기 이후 점점 쇠퇴하다가 15세기 중반부터 외부의 침략과 압력을 끊임없이 받았다. 1953년 11월 프랑스의 식민통치가 끝났지만 나라가 안정을 찾은 것은 한참 뒤의 일이다. 베트남 전쟁으로 국경지대의 캄보디아 공산 게릴라 크메르 루즈가 캄보디아 중심으로 밀려 내려와 정권을 잡은 폴 포트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국민 800만 명 가운데 200만 명을 학살한 킬링필드(Killing Field)로 캄보디아는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버렸다. 1979년 베트남의 침공으로 폴 포트 정권이 무너지면서 대하살은 막을 내리게 됐지만, 그 후 2년 동안 베트

남의 식민지가 되어야 했고, 베트남군이 철수한 것은 10년이 지난 1989년 9월이다. 현재의 정부가 자리를 잡은 것은 10년도 되지 않은 1997년이다. 항상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던 캄보디아는 연간 국민소득 300달러 정도의 세계 최극빈국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캄보디아는 물론 세계의 보물, 앙코르와트

캄보디아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앙코르와트에 간다. 아니, 앙코르와트를 가기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한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앙코르 유적은 그 규모만으로도 과거의 찬란했던 영광을 짐작할 수 있으며 폐허가 된 오늘에도 캄보디아 국민을 먹여 살리고 있다. 앙코르와트를 형상화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캄보디아 국기를 보면 이런 관계를 잘 알 수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 한때 가장 번성했던 크메르 왕조의 힘은 군사, 정치 뿐 아니라 문명에서도 나타나 각 시



기마다 유적과 도시 시설을 건설하여 약 1000개가 넘는 유적들이 건설되었다. 지금은 정글 속에 묻혀 허물어지고 파괴되고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어 2퍼센트 정도만 개발되어 관광할 수 있다고 한다. 문자가 없는 그들은 모든 것을 조각으로 남겼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앙코르와트(Angkor Wat)와 앙코르 톰(Angkor thom)이다. 앙코르톰은 54개의 석조탑속에 네 개의 미소 짓는 부

처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얼굴이 들어 있어 대하는 각도와 빛의 강도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때로는 온화한 미소를 때로는 환한 웃음을 짓는다. 거대한 부처의 미소가 반갑게 맞는다. '앙코르 와트'는 앙코르 건축물 중 가장 균형적이며 조각과 기술적인 면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단일 건물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라고 한다. 중앙에 우뚝 솟은 마치 옥수수를 뒤집어 놓은 모양은 연꽃을 본따 만들었으며 4면의 탑과 연결되어 있는 각 벽면



은 훌륭한 예술적 가치가 가득한 부조들이 4.2km에 걸쳐 장대하게 펼쳐 있으며 중앙의 탑과 사면의 탑이 대칭을 이뤄 거대한 사원이다. 앙코르와트 입구에 길게 늘어선 기지와 지뢰로 다리가 잘린 장애인들이 관광객에게 구걸을 하는 모습은 진행중인 캄보디아의 아픈 상처일 것이다. 그리고 앙코르 유적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타프롬은 현재도 정글 속에 묻혀진 사원으로 나무뿌리가 사원의 벽을 휘감고 있다. 안제리나 졸리가 주연한 영화 '툼레이다'의 배경이 된 곳으로 여전히 천년 이상 자리를 차지한 돌보다도 나무가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어둡고 스산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원이다. 한편 석양에 물들면 장밋빛으로 활활 타올라 앙코르 유적 중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히는 것은 핑크빛 사암의 반타이스레이이다.

조각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여자의 성체'로도 불리는 반타이스레이의 중앙탑에 조각된 네바타 여신상은 서유럽에서 '동양의 모나리자'로 극찬받던 작품. 붉은 사암에 새겨진 아름다운 조각들은 그리스의 문명과도 견줄만한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준다.

유적지의 아이들 그리고 톤레삽 호수의 아이들

신발도 신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폐허가 된 유적지에서 놀고 있다가 외국 관광객이 도착하면 팔팔 것 같지 않은 물건을 내밀며 1달러를 외치고 있었다. 눈만 마주쳐도 웃는 예쁜 아이들.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자 부끄러워 도망을 갔다 다시 슬금슬금 다가가 너무나 부끄러워하는 얼굴로 포즈를 잡는다. 슬픔이었다. 그들의 눈은 왜 그



렇게 크고 진한 눈동자에 슬픔이 담겨 있을까? 이 엄청난 도시를 건설한 민족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유적지를 돌아본 후 아시아에서 제일 크며 세계에서 3번째로 크다(우리나라 경상도 크기) 톤레삽 호수를 오토바이를 타고 먼지를 날리며 찾아갔다. 작은 반도의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수평선이 보이는 호수는 마치 바다처럼 보인다.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호수는 적갈색을 띠고 있고, 냄새가 코를 찌른다. 배를 타고자 기다리는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이마는 찡그렸지만, 코는 막지 않고, 그들의 삶을 가슴 깊이 새겨 넣었다. 코를 막고 냄새가 난다고 난리치기에는 그들의 표정은 우리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고, 그들의 삶의 전부를 담고 있는 이곳을 여행이랍시고 와

서는 그들의 삶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배를 운전하는 선장격인 소년의 나이는 15~16세 정도로 보이고, 뒤에서 보조하는 소년의 나이는 10세 이하로 보인다. 그 넓은 정글 어디에도 발붙일 데가 없는 사람들이 강에 배를 띄워 지붕을 만들어 집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오염된 그 물로 생활용수로 쓰고 또 용변도 보며 빨래도 하며 살고 있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도 생명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화교와 병원과 교회를 보았다. 그곳에는 봉사와 희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눈물이 났다. 지구촌 한쪽 구석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슬픔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학교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자세히 찍고 싶었지만, 가슴이 먹먹해져서 복잡한 수상춘을 나와 한가한 곳에서 야습을 돌리고, 멀리 호수 끝을 보며 그 답답함을 풀어야 했다.



캄보디아를 떠나

앙코르에는 위에 나열한 몇 가지의 유적지를 포함한 약 30개의 유적지가 개방되어 있다. 물론 이는 전체 유적지의 2퍼센트 정도... 못 다본 유적을 누군가가 보고 끊임없이 천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어쨌거나 모든 감정의 표현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저 허물어진 거대한 돌덩이들만 보고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들의 찬란한 유적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또 어떤 이는 아이들의 처절한 생활의 아픔만을 느끼고 돌아갈 것이다. 감동은 각자의 몫이다.

10일에 걸친 캄보디아 두 번째 여행은 과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천년 고도의 유적지와 전쟁으로 인한 가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에 허덕이지만 자연에 순응하는 모습을 가슴에 품고 돌아왔다. 며칠인지 몇 시인지도 모르고 보낸 그 여행! 일상 생활로 돌아온 지금 나는 여전히 새로운 곳을 보기 위하여, 느끼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떠나는 자가 되기를 갈망한다. 탈출을 꿈꾸며...

김대식 팀장_아토

금리가 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나 의심할 사람도 있겠지만, 1980년 우리나라의 회사채 금리는 연 30퍼센트를 넘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비싼 이자를 주고라도 자금을 조달했다.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 시장금리는 두 자릿수였다. 외환위기 직후에도 금리가 한때 엄청나게 올라간 적이 있다. 돈줄이 끊어진 기업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를 주고라도 돈을 빌리려고 아우성을 쳤기 때문이다.

그때와 견줘보면 요즘 한 자릿수 금리는 아주 낮다. 우량한 회사채의 금리가 연 5퍼센트 대에 불과하다. 흔히 말하는 ‘저금리’란 이처럼 과거에 견줘 금리의 절대 수준이 낮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꼭 그런 의미에서만 저금리란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적정금리’ 이하로 떨어뜨린 상태, 다시 말해 적정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은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국내에는 물론 세계 각국 금리의 흐름도 읽어야

흔히 적정금리는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기대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로 본다. 실제 과거 통계를 살펴보면 이런 설명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회사채 금리는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에 가까웠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엔 그렇지 않다. 2006년 경제성장률은 5퍼센트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퍼센트였다. 이론적으로 보면 시장금리는 7퍼센트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회사채 금리는 5퍼센트 대에 머물고, 정기에 금 금리는 그보다도 낮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것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금리를 낮추면 가계는 저축을 해봐야 이자가 적으니, 좀 더 쓰려 할 것이다. 소비가 늘면 기업들은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다. 금리를 낮추면 돈을 빌려 투자하는 기업들의 부담도 줄어, 기업들은 좀 더 투자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쓴다. 그런데, 그것이 만병통치약은 못된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많이 풀어도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저금리 정책을 오래 지속하면,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물가가 오르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사고파는 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자산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우리나라의 저금리 정책도 이런 부작용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않다. 물론 물가상승률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고,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으로 엄청난 돈이 쏟아져 들

어갔다. 특히 부동산 값은 엄청나게 올랐다. 거품이 터질 경우, 큰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의 움직임을 보면 진작부터 조금씩 돈을 줄을 죄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그러나 금리 인상 속도가 아주 빠를 것 같지는 않다.

우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명분이 부족하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 불안’인데, 중국 등에서 저가 수입품이 많이 들어와 물가상승률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 금리를 급격히 올릴 경우 가계 파산이 급증하는 상황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적자에 허덕이고 많은 빚을 진 중소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지는 것도 걱정해야 한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물가상승을 우려해 금리를 다시 올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가 상승세가 가파른 중국도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사실상 제로금리를 오래 유지해온 일본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머잖아 금리를 올릴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돈을 줄이는 이런 흐름에 한국은행도 발맞춰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현명하다.

금리 변동이 경제 각 분야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라

금리 변동은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준다. 저축자에게 이자 소득을 늘려줄 것이나, 대출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축과 대출을 함께 갖고 있다면, 먼저 대출금을 갚는 게 좋다. 대출 이자가 먼저 오르고, 예금 이자는 늦게 오르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른다면, 엄청난 대출에 의해 가격 상승이 일어난 부동산 시장은 가격 상승이 억제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해야 한다. 가뜰이나 개발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종합부동산세제 등 큰 짐을 지고 있다.

주식시장도 금리 상승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 이자가 높아지면 채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빠져나간다. 돈을 빌려 주식을 산 사람의 부담도 커진다. 그러나 금리 상승기에 주가가 반드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금 수요가 늘어날 때도 시장금리는 오르는 데, 이런 때는 기업의 수익도 늘어난다.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이겨낼 정도로 기업 수익이 호전된다면, 주가는 강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라면 이런 때도 부담이 더 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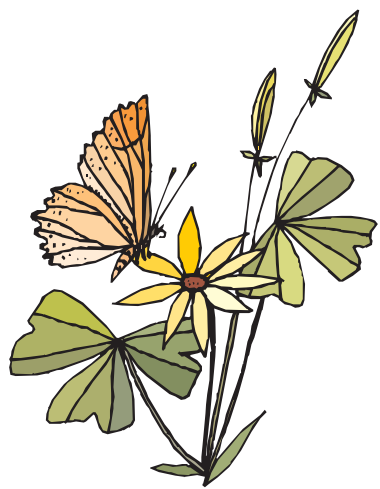
금리가 오르면 환율은 떨어지는가? 꼭 그렇지만도 않다. 외국의 금리도 함께 오른다면, 금리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험은 어떻게? 보험은 미리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탄다.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장기 저축과 비슷하다. 그런데, 미리 보험금을 정해놓고 이자를 감안해 보험료를 나눠내는 것이므로 시장금리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싸다. 고금리 시절에 가입한 보험을 지금같은 저금리 시대에 해약하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은 일이다.

물론 장기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좀 더 길게 내다봐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아주 길게 보면, 금리는 지금보다도 낮아진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지금은 5퍼센트 안팎이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보다 더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남규_한겨레신문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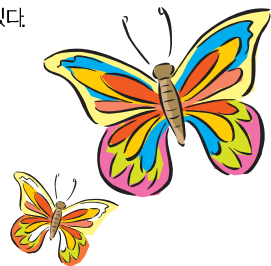
꽃, 나비, 풀벌레와 어울리는 한여름의 꿈, 즐거운 여름 휴가



서울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

쓰레기산이었던 난지도가 꽃과 나비, 새들이 모여 사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척박했던 땅에서 식물이 자라고 동물들이 살 수 있게 된 변화의 과정을 통해 자연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월드컵공원이다. 특히 '하늘공원'에서는 자연 관찰 교실, 자연 그리기, 자연 놀이, 야생 조류 탐사대 등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2주전 인터넷을 통해 예약하면 참여할 수 있다.

worldcuppark.seoul.go.kr
tel : 02-300-5542



강원도 홍천의 다물자연학교

다물자연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버를 베고, 메뚜기를 잡는 등 소중한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다. '다물'은 잃어버린 아름다운 것들의 회복,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의미하는 우리말이라고 한다. 매주 1회 방과 후에 만나서 공부하는 '방과 후 교실'에서는 자연 생태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방학 중에는 3박 4일 동안 실시하는 계절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관찰은 물론 자연 속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www.damool.or.kr
서울배움터 : 02-2643-4885

서울 길동자연생태공원

습지, 저수지, 산림, 초지, 광장 등 다섯 개 지구로 나뉘는 길동자연생태공원은 도시에 있는 자연 생태 공원이다. 왜가리, 물총새, 백로 등 철새들이 살고, 잠자리가 한가로이 날아다니는 이곳은 도심 속 야생 생물들의 서식처이다. 서식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일 입장 인원을 20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예약을 해야 입장할 수 있다. 계절 생태학교, 유아 생태 학교, 방과 후 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스스로 관찰할 수도 있다.

parks.seoul.go.kr/kildong
tel: 02-472-2770



부천의 자연생태박물관

곤충 전시, 생태 입체 영화 상영, 야외 동물원, 각종 체험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1층은 각종 곤충 표본 식물 표본이 있는 전시실로, 2층은 공룡 화석 등이 전시되어 있는 공룡 탐험관으로 3층에서는 입체 안경을 쓰고 환경 보존에 관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상관으로 꾸며져 있다. 부대 시설로는 식물원, 농경유물전시관이 있다. 농경유물전시관에서는 아이들이 짚을 꼬아 인형, 뱀, 문어, 계란 바구니 등 짚풀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www.ecomuse.go.kr tel : 032-678-0720

강원도 횡성의 홀로세생태학교

강원도 횡성군 산골 홀로세생태학교의 어느 곳에서나 들꽃과 야생화, 나비와 잠자리, 이름 모를 풀벌레들이 아이들을 반긴다. 학교라지만 시냇물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곤충을 잡으러 뛰어다니며 놀고 관찰하는 것이 전부다. 저절로 자연 공부가 된다. 우주 기지 형태를 한 'UFO 나비집'에는 온갖 종류의 나비들이 살고 있고, 풍덩이를 닮은 '풍덩이교육센터'에는 곤충들의 표본이 전시되어 있다. 식물생태관, 수목원 등에서도 아이들은 물론 어른까지도 자연의 세계에 푹 빠져들 수 있다. 방문하기 전 방문 예약을 해야 좋은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

www.holocene.net tel : 033-345-2254

투명성, 유연성, 창조성을 바탕으로 하는 열린경영



매주 전직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직원들 간 추진중인 업무 정보를 나누고 당사의 현황과 공동 수행 프로젝트에 관한 토의를 통하여 모든 직원이 회사의 현황과 목표에 관해 공감을 나누고 있으며 직원의 수행 중인 업무는 사내 Network를 통해 상호 정보 획득이 가능하게 하여 투명성 및 정보 공유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는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자유로이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당사에 초빙하여 교육 및 토론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은 각종 세미나, 포럼 등에 참가하여 자기개발에 힘쓰고 있다.

한미열린기술투자(주)는 중소 벤처기업 투자, M&A 및 CRC사업 등을 통해 종합금융업체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조직이 얻은 수익은 내부 규정을 통해서 철저히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과 보상제도는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제정함으로써 동기 부여에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있다. 개별적 업무가 많은 당사의 특성상 모든 직원은 공개된 정보와 공유를 통해서 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 같은 자율권은 충분한 토의와 상의 후 행사된다. 이 밖에 회사 전반의 의사 결정은 전 직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열린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급변하는 오늘날 변화하지 않는 개인이나 조직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기본 명제이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지식이 아닌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으며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실행하는 창조적 사고가 중요하다. 이러한 사고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정 관념을 버려야 한다. 조직의 조직원은 본인이 익숙해진 연관 업무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편에 박힌 사고에서 유연성과 창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각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한미열린기술투자(주)를 비롯한 원익그룹은 열린 경영을 통한 혁신과 창조적 활동으로 모두가 노력한다면 영원한 1등 기업이란 없는 이 시대에 원익그룹은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성 대표, 한미열린기술투자

열린경영이란 특별히 의식하지 아니한 일상의 업무 활동에 조직의 시스템과 구성원들 안에 자연스레 녹아 있어야 한다. 조직의 투명한 경영을 밑바탕으로 한 조직 내 모든 정보 공유와 활용에서부터 열린 경영과 조직의 발전은 시작된다. 또한 조직의 성과는 직원들에게 공정히 돌아가야 한다. 한미열린기술투자(주)는 우리그룹의 경영 철학인 열린 경영의 실천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사내의 모든 시스템을 열린 경영에 초점을 맞추어 만들어 가고 있다.